광주교육연구정보원, 탄자니아 교원 초청 연수

광주교육연구정보원(원장 고인자)은 18일부터 29일까지 탄자니아 교원 25명을 초청해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 〈사진〉

광주시교육청과 탄자니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양국 간 교육정보화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광주시교육청의 디지털교육, 한국어 기초 회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교육을 받고 송우초등학교와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5·18국립묘지, 청와대 등을 방문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미래를 여는 AI로봇 혁신 챌린지' 특강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영광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체험하는 '미래를 여는 AI로봇 혁신 챌린지'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

조선대 AI·SW교육센터 조영주 담당교수 등이 참여한 이번 특강은 조선대와 영광교육지원청이 함께 개최한 영광 영재교육원 AI·SW 영재교육 융합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로보트 컨트롤 ▲기후 환경 지구 온난화의 원인, 영향, 대응 방안 ▲기후 변화와 우리의 미래 등이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소방관 오성록 세번째 개인전

9월 27일까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28년 베테랑의 소방관이 문인화와 서예를 아우르는 세번째 개인전을 열어 눈길을 끈다.

광주시 동부소방서 소속 오성록〈사진〉 소방위의 개인전 '遊藝-예술에 노닐다'가 다음달 27일까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다. 오 소방위는 이번 전시에서 서예 17점, 문인화 9점 등 총 26점 작품을 선보인다.

1996년 공직에 입문한 후 지난 2011년 취미활동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이후 문인화, 전각 등 한국 미술 전반으로 관심을 넓히며 꾸준히 활동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와 문인화 부문에서 특선2회, 입선2회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문인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광주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배동신어등미술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중이다.

지금까지 배동신어등미술대전 대상수상자 초대 개인전시(광주)를 시작으로 광주시립미술관 G&J갤러리 대관공모선정 개인전시(서울)를 개최했다.

오 소방위는 "소방관이라는 급박하고 위험한 현장 업무를 해야하는 환경에서 여가를 활용해 예술활동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며 "많은 시민분들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찾아 안전체험과 함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여대, '삼성전자서비스CS 산학 인턴십' 수료식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산학협력단은 20일 '2024년 삼성전자서비스CS 산학 인턴십(실습교육)과정 프로그램' 수료식을 진행했다. 〈사진〉

삼성전자서비스CS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상담이론 특강, 상담실습 수업, 실무 체험 등의 과정을 진행돼 최종 41명이 수료했다. 수료 학생들은 장학금과 함께 학점도 인정받게 되며 특히 우수 학생 4명(김은지, 선소희, 구아영, 이채윤)은 갤럭시워치를 상품으로 받았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직무 이해도 향상,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주체적 문제해결 능력 상승 등 전문·창의·나눔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청렴문화 확산 '동행 변호사' 위촉식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21일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위원회 검증을 거쳐 선발한 '동행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

동행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동행 변호사'제도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로 무엇보다 신분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사

◆전남교육청
◇4급 승진
▲홍보담당관 이형래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4급 파견
▲전남도학교안전공제회 파견 김의곤
◇5급 본청팀장 전보
▲감사관 감사2팀장 김선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민자시설지원팀장 김경주 ▲교육시설과 교육설비팀장 김용관

TV프로그램 22일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35 KBS 뉴스광장(광주)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930 45 KBS 뉴스(광주)	2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5 사랑의 가족(재)	00 완벽한 가족(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5 동네 한 바퀴(재)	20 MBC 뉴스 25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파트너(재)
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일일드라마 스캔들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다시보는 2024 파리 올림픽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재)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 3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스페셜 전남 영암	30 놀친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한국사 대모험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15 시장의 품격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완벽한 가족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과몰입 인생사 2
10	00 광복절 기획 2부작 다큐 인사이트-2부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아이 러브 스포츠 25 살림하는 남자들(재)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테마스페셜
12	20 KBS 중계석 서울솔로이스츠 플루트오케스트라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The Dreamer: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K-방산

EBS1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허풍선이 미술쇼
07:15 빅 블루
07:30 하프와 친구들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05 곰끼와 처음 수학
09:20 인간이 되자!(재)
09:40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IDF 2024 [기억의 징검다리]
고향의 풍경
14:10 EIDF 2024 [단편화첩]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14:35 EIDF 2024 [예술가의 초상]
르코르뷔지에가 꿈꾼 유토피아
16:10 딩동댕 유치원(재)
16:30 페파 피그
16:40 마샤와 곰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7:40 레인보우 버블젬
18:10 EBS 뉴스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9:20 고향민국
19:50 PD로그
20:40 세계테마기행
〈신이 만든 놀이터, 노르웨이
-피오르가 만든 달(Dal)〉
21:35 한국기행
〈비밀의 숲에 들다 4부 피아노의 숲〉
21:55 EIDF 2024 [단편화첩]
이란 부인의 이런 남편 12세
22:30 EIDF 2024 [자연과 인간]
산불 전망대 위에서
23:25 EIDF 2024 [앙코르 다큐멘터리] 침묵의 집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2일 (음 7월 19일 戊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이르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자. 48년생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정황이다. 60년생 주체성 있는 관점이 절실하다. 72년생 상대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간단한 문제이다. 84년생 돈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닥을 잡을 것이다. 96년생 핵심을 벗어난다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7, 99

丑 37년생 과거에 묻어 두었던 비밀들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나는 형세로다. 49년생 일신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만 타개할 수 있다. 61년생 대세가 기울었으니 집착을 버리자. 73년생 생각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 85년생 반복성에 속지 말라. 97년생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6, 58

寅 38년생 본디의 상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 50년생 접근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니라. 62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74년생 약간 변할 수도 있으나 대동소이하노라. 86년생 인식의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수 있다. 98년생 과장은 거짓의 곁가지임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0, 80

卯 39년생 허황한 일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유리하다. 51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63년생 곤혹스러운 부탁을 받거나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 75년생 형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야 할 때가 되었도다. 87년생 한데 모여야 비로소 갖추어질 것이다. 99년생 특별한 방법이라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60

辰 40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52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64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76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88년생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00년생 계획했던 본래의 의도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83

巳 41년생 기서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53년생 몸조심이 제일이니 안전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기하라. 65년생 기회를 만나면 즉시 잡아야만 취할 수 있는 법이다. 77년생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9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신기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01년생 대체할 형편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22, 77

午 42년생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맺음할 때까지 신중해야겠다. 54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66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야겠다. 78년생 처음에는 상심할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용기백배하리라. 90년생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다. 02년생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4, 93

未 43년생 시시한 것을 가까이하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55년생 예상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67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는 단계이다. 79년생 애써 시도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 91년생 골격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03년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처가 결실을 낳으리라. 행운의 숫자 : 29, 51

申 44년생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한 성국이다. 56년생 보류해 왔던 일을 다시 행해도 될 때이니라. 68년생 현재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80년생 신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92년생 국면을 확실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04년생 동시에 처리될 것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잘 살피자. 행운의 숫자 : 21, 82

酉 45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57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69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81년생 조건이 호전되면서 훨씬 쉬워진다. 93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05년생 재복이 저절로 찾아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72

戌 46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58년생 막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니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느니라. 70년생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82년생 앞으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94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된다. 06년생 참으로 난감할 수다. 행운의 숫자 : 43, 67

亥 35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 47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59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71년생 선후를 면밀히 살펴보고 안배해야겠다. 83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5년생 제대로만 한다면 대박 나겠다. 행운의 숫자 : 26, 86